

NEWS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세네갈 농촌마을에 ‘전남형 재생에너지 모델’ 조성**▶1면 ‘이재명 정부’서 계속**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광주,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TF는 구성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첫 공식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도 지지부진하다. 지자체가 담당 조 직을 따로 두고 지역 대학이 통합까지 하 겠다고 나섰지만,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 고 있다.

더욱이 전남도는 목포대와 순천대를 통합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대의 설립을 추진 중이나 교육부는 개교 예상 시기를 2030년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은 “2030년 개교 계획은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전남도가 광주·전남혁신도시인 나 주에 신설되기를 바랐던 기후에너지부가 환경부로 흡수돼 사실상 전남 유치가 무 산됐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데다 더불어민주당도 ‘호남 유 치’를 약속한 바 있어 지역민의 실망감이 크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 최대 현 안인 AI 2단계 예타 면제 등 미래 먹거리 들이 하나둘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예산도 확보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광주·전 남 시·도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다만 군공항 이전이나 국립의대 등 최대 숙원사업들이 지연되면서 또 다시 ‘희망 고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 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1면 ‘RE100 산단’서 계속

그러면서 “대구 군공항 추진 사례에서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났다”며 부산 가덕 도 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광주 군공항 이전 역시 반드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 군공항은 전무비행단보다는 조종사 양성 기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을 피력했다. 실제 지난해 이곳에서 발생한 9100회 이륙 중 97% 가량이 훈련 목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군 훈련비행센터의 해외 이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 회장은 “이미 많은 국가들이 해외 전 문센터에서 조종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 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국정과제로 검 토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한전KDN 공동 공적개발원조 공모사업 선정**지속 가능 자립 모델 제시…전남 기업 해외시장 개척**

전남도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 관 공적개발원조(ODA) 공모사업에 선 정돼 세네갈 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기 반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한다.

광역지자체와 한전KDN이 공동으로 추 진하는 국내 최초 아프리카 에너지 프로

젝트로, 전남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시 장 진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을 중심으로, 현지 수요에 맞춘 관개·저장시설 등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단순 시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 대 상 운영·유지관리 교육, KOICA 설립 잡 나초 기술학교와 연계한 역량 강화 프 로그램을 병행해 지속 가능한 자립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공공협력사업 선정에 따 라 2026년까지 사업 로드맵 수립과 타당 성 조사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파 일릿사업과 본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대 14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사업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 를 넘어 농업·수산 등 전남의 주력 산업 과 연계한 ODA 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 이다. 국제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동 시에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 다는 구상이다.

방중진 전남도 국제협력지원관은 “세 네갈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전남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해외 현장에 적용하는 첫 사례”라며 “아프리카 전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전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 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ODA 공공협력사 업에 선정된 ‘케냐 식량자급을 위한 스마 트 농업 역량 강화사업’, ‘키르기스스탄 분산전원 제어시스템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어린이극장에서 열린 ‘동장과의 현장 특목’에서 주요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힘 모으기로**강기정 시장, 96명 동장과 현장 특목…현안 공유**

광주시는 1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어린이극장에서 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96개동 동장이 함께하는 정책 소통의 장 인 ‘동장과의 현장 특목’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 반영 성과,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침수예방 대책, 7+2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공유하고, 시민체감도 높은 정책 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가 적극 추진 중 인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광주시 재정 현 황, 주민자치회 입법화 촉구 등 주요 시정 현안을 설명했다. 이어 동장들과 함께 우 리 동네 자랑거리, 가장 인상 깊은 광주시 정책,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현장 중심 행정의 의미를 더했다.

동장들이 뽑은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 으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1위를 차지 했다. 이어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광주, 광주상생카드, 광 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 순이었다. 광주역 일원 구도심 재생사업, 시민참여수당 등 이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동장들은 또 광주시에 필요한 사업을 건의하며 시정 반영을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동장은 시민과 가장 가 까운 곳에서 시정을 실현하는 분들”이라 며 “재난 안전부터 골목경제, 돌봄과 미래 산업을 설명했다. 이어 동장들과 함께 힘을 모아 광 주의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150조 국민성장펀드, 5년간 10대 첨단산업 투자**AI데이터센터·전력망 구축…직접 투자·기술기업 M&A 지원**

당초 100조원 규모로 조성 계획이던 ‘국민성장펀드’가 150조원 이상 규모로 판을 키운다.

이 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10개 첨단산업 및 밸류 체인(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 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국민보 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100조원 규모로 추진했으 나, 이후 논의를 거쳐 50조원가량 액수를 늘렸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 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폭 넓고 과감한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 성장·일 자리 창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가 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 규모를 최대 125조원으로 추산했다.

펀드 자금은 민간 합동으로 조성한다.

산업은행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에 출범한다.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은 정부 재정 1 조원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조성된다.

재정은 민간·국민·금융권 자금보다 위

협을 먼저 부담하거나 초기 참여를 유도 하는 데 쓰인다.

금융당국은 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 업권별 건전성과 운용 규제를 유연화해 금융권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기업 여신이나 벤 처 투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 록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개편 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선편인 또는 공장설립 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자본투자자 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 인수·합병(M&A)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거나 AI 데이터센터·첨단 산업단지의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을 2% 대 국고채 금리에 제공하는 사업 등도 추 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경제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신현구**지역 창업·고용 활성화 기여…상생문화 확산 기대**

신현구 전 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사진)이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제2대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신 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2027년 9월 4일까지 2년 간이지만,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에 따라 현 광주시장과 임 기를 함께 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7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공개모집, 서류 심사, 면접심사, 결격사유 조회 등 검증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했 다. 선임 이사에는 윤종해·최유진·주무 현·김범모씨 등 4명이 임명됐다.

신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무역학 과를 졸업하고 국회사무처 정책연구



위원, 경기환경예 너지진흥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 광주경제진 흥상생일자리재단 의 전신인 광주경 제고용진흥원 제7대 원장으로 재직하 며 지역 창업과 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경제 전문가이다.

신현구 대표이사는 “청년·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지역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노사 상생문화 실현 등을 핵심전략으로 삼 아 재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 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새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